향가의 연결어미 '-아' 표기에 대하여*

황선엽**

要約

이 글은 향가에 나타나는 연결어미 '-아'의 표기 양상을 고찰하여 종래 연구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향가 해독을 새롭게 하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향가에 나타나는 연결어미 '-아'의 표기 양상은 다음의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연결어미 '-아'가 '良'으로 표기된 예
② 연결어미 '-아'에 보조사 '-ㄱ'이 통합한 '-악'이 '惡/惡支/惡只' 등으로 표기된 예
③ 연결어미 '-아'에 어간 말음까지 반영하여 표기된 예
④ 연결어미 '-아'의 표기가 생략되어 있는 예

이 중 종래의 향가 해독에서는 ④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었는데 이 글에서는 향가에서 연결어미 '-아'가 표기되지 않은 예들이 다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 현상을 동시대의 이두 자료와 비교할 때 ④와 같은 표기가 다른 표기들보다 더

* 이 논문은 2007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고형의 모습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즉 이 연구가 비록 연결어미 '-아'라고 하는 단편적인 문법형태소의 표기만을 다루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향찰 표기의 층위에 대해서까지도 고찰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핵심어: 향가(鄕歌), 향찰(鄕札), 표기법(表記法), 연결어미(連結語尾) '-아', 표기 층위(表記層位), 표기 생략(表記省略)

1. 서론

이 글은 향가에 나타나는 연결어미 '-아'의 표기 양상을 고찰하여 종래 연구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향가 해독을 새롭게 하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황선엽(2002)에서 향가 및 이두, 석독구결에 나타나는 연결어미 '-아'에 대해 자세히 고찰한 적이 있으나 그 논문은 종래 국어학계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향가의 표기를 판독하는 과정에 다소의 문제가 있었다. 필자는 최근에 '안민가' 등의 자료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 연구에서는 연결어미 '-아'의 표기에 대해 새로운 가설을 제기하고 이를 향가 전편을 대상으로 검토해 보려한다. 황선엽(2002)에서는 향가 및 석독구결에는 연결어미 '-아'가 '良, 𠮟'등으로 표기되어 나타남을 논의하고(향가의 일부 예에서는 어간 말음과 연철된 표기가 나타나기도 하고 보조사 '-ㄱ(只)'이 통합된 형태를 '惡' 등으로 표기하기도 하였음) 이것이 이두에서는 11세기까지 전혀 보이지 않다가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1031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바[1] 향가와는 큰 차이를 보임을 지적하였다. 이두에

1) 2007년에 보고된 <佛國寺無垢淨光塔重修記>(1024년)에는 '良'뿐 아니라 초

서 연결어미 '-아'가 표기상 생략되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15세기까지도 많은 이두 자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에 향가 자료의 검토 과정에서 향가의 일부 예에서도 표기상 연결어미 '-아'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좋을 예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즉 향가에서도 이두와 마찬가지로 연결어미 '-아'가 표기되지 않은 예들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향가 연구에서는 현전하는 향가의 표기가 같은 시대의 것인지 여러 시대에 걸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으나 아직 뚜렷한 논거를 바탕으로 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이 연구가 비록 연결어미 '-아'라고 하는 단편적인 문법형태소의 표기만을 다루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향가 표기의 층위가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표기법에 있어서의 정밀한 연구가 누적된다면 향가의 표기 층위 문제도 상당히 정리될 수 있을 것인바 이 연구는 향가 표기법을 살피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향가의 연결어미 '-아' 표기 양상

우선 향가에 나타나는 연결어미 '-아'의 표기 양상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연결어미 '-아'가 '良'으로 표기된 예
② 연결어미 '-아'에 보조사 '-ㄱ'이 통합한 '-악'이 '惡/惡支/惡只' 등으로 표기된 예
③ 연결어미 '-아'에 어간 말음까지 반영하여 표기된 예

서체 'ȝ'가 이두자로 사용되고 있다.

④ 연결어미 '-아'의 표기가 생략되어 있는 예

이들에 대해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용례를 제시한 후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각 용례 및 이에 대한 해독은 전반적으로 기존 해독자들의 것에 기대었으나 경우에 따라 필자가 새롭게 해독한 것도 있다. 이하에서 정리된 내용의 대부분은 황선엽(2002)에서 논의된 것이나 새로운 해독에 따라 형태 분석이 바뀐 예도 있을 뿐 아니라 이 논문의 논의 전개에 필수적인 부분이어서 다소 중복되더라도 제시하였다.

우선 첫째 유형인 연결어미 '-아'가 '良'으로 표기된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는 다시 연결어미 '-아'가 단독으로 쓰인 것과 연결어미 '-아'에 '-沙, -尒, -只' 등의 보조사가 통합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ㄱ. 二尸 掌音 毛乎支內良 <禱千 2>
ㄴ. 今日 此矣 散花 唱良 <兜率 1>
ㄷ. 他 密只 嫁良 置古 <薯童 2>
ㄹ. 兩手 集刀花乎 白良 <願往 6>
ㅁ. 此矣 彼矣 浮良落尸 葉如 <祭亡 6>
ㅂ. 道 修良 待是古如 <祭亡10>
ㅅ. 伊留叱 餘音良 他事 捨齊 <摠結10>
ㅇ. 迷火隱乙 根中 沙音賜焉逸良 <恒順 2>
ㅈ. 法性叱 宅阿叱 寶良 <普皆 7>

연결어미 '-아'가 '良'으로 표기되어 보조사가 통합하지 않고 나타나는 예는 『삼국유사』의 향가에 6회, 『균여전』의 향가에 3회가 나타난다. 이 중 (1ㅇ)과 (1ㅈ)은 계사 뒤에 나타나는 '-아'의 이형태 '-라'를 표기한 것인데 '良'이 '-라'로 읽히는 것인지 말음부분의 '아'만을 표기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다만 (1ㅇ)에서 '良' 앞에 '逸'로 표기한 점을 고려하여 이 예

들도 '-아'를 표기한 예에 넣어 두었다.

다음의 예들도 기원적으로 연결어미 '-아'를 표기한 것이지만 하나의 부사로 어휘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예인데 모두 『균여전』에서만 보인다.

(2) ㄱ. 九世 盡良 礼爲白齊 <礼敬 8>
ㄴ. 毛等 盡良 白乎隱 乃兮 <稱讚10>
ㄷ. 來際 永良 造物捨齊 <懺悔10>

이들을 어휘화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은 (3)과 같은 석독구결의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盡良/盡ᄀᆞᆫ'는 15세기 국어의 부사 '다'로 이어진다.

(3) ㄱ. 虛空界乙 盡ᄀᆞᆫ 悉ᄀᆞᆫ 開悟ノ尸ム <화소26:14-15>
ㄴ. 諸ㄱ 大士ㄱ 皆七 示現ン ᄀᆞᆫ 尒 能支 衆生乙 盡ᄀᆞᆫ 調伏 使ㄲ ナ分 <화엄19:03>
ㄷ. {於}現見法ᄀᆞᆫ 十 永ᄀᆞᆫ 熾燃乙 離ン ᄀᆞᆫ ㄱ丁ノ令 非矣ㅣ <유가 22:06>
ㄹ. 若 {於}是 如支ンㄱ 十種 過失ᄀᆞᆫ 十 永ᄀᆞᆫ 不相應ンㄱㄱ <유가 30:23-31:01>

다만 (2ㄱ)은 '九世가 다하도록'의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더 일반적임을 고려하면 부사로 굳어진 것이 아니라 '다ᄋᆞ-'의 활용형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듯도 하다.

다음은 연결어미 '-아'에 보조사 '-沙, -尒, -只'가 통합한 예이다.

(4) ㄱ. 入良沙 寢矣 見昆 <處容 3>
ㄴ. 手乙 寶非 鳴良尒 <請仏 3>
ㄷ. 一切 善陵 頓部叱 廻良只 <普皆 2>

ㄹ. 身靡只 碎良只 塵伊去米 <常隨 5>
ㅁ. 他道 不冬 斜良只 行齊 <常隨10>
ㅂ. 吾焉 頓叱 進良只 <請轉 3>
ㅅ. 大悲叱 水留 潤良只 <恒順 3>

(4ㄱ) <처용가>의 '入良沙'는 '들+거+사>들어사'로 보아 연결어미 '-아'가 쓰인 용례가 아니라 선어말어미 '-거/어-'가 쓰인 예로 파악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기 중세국어까지 'ㄹ' 뒤의 'ㄱ' 탈락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 선어말어미 '-거-'에서 'ㄱ'이 탈락한 형태인 '-어-'라면 '於'와 같이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연결어미 '-아'의 용례로 파악하였다. (4ㄱ) <처용가>의 예를 제외하고 6개의 예는 모두 균여전의 것인데 보조사 '-ㄱ(只)'이 통합한 예가 5회로 다수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연결어미 '-아' 뒤에 보조사 '-ㄱ'이 통합한 예가 많음은 자토 석독 구결에서도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이 시기에 연결어미 '-아' 뒤에 보조사 '-ㄱ'이 통합한 형태가 자주 쓰였음은 뒤의 (13)에 제시한 바와 같이 향가에서 이들이 '惡/惡支/惡只' 등으로 표기된 예가 다수 나타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良'자는 향가에서 위와 같이 연결어미 '-아'를 나타내는 것 외에도 처격조사 '-아', 선어말어미 '-아/어-', 연결어미 '-라/러', 호격조사 '-아', 보조사 '-란', 종결어미 '-라', 말음첨기 등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즉 향가에서 '良'은 '아'나 '라'의 음을 표기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차자표기의 원칙대로 그와 같은 음상을 가진 형태나 어형을 표기하는 데 두루 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결어미 '-아'를 표기하는 것 이외의 '良'자의 용례에 대해서도 한재영(1995), 황선엽(2002) 등에서 정리된 바 있는데 그 논의들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良'자의 가장 기본적인 용법은 (5)와 같이 처격조사 '-아' 혹은 '-아긔'의 '아'를 표기하는 것이다. 이는 이두 자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5) ㄱ. 一等隱 枝良 出古 <祭亡 7>
ㄴ. 阿也 彌陁刹良 逢乎 吾 <祭亡 9>
ㄷ. 東京 明期 月良 <處容 1>
ㄹ. 此良 夫作 沙毛叱等耶 <礼敬10>
ㅁ. 綠起叱 理良 尋只 見根 <隨喜 2>
ㅂ. 手良每如 法叱 供乙留 <廣修 6>
ㅅ. 千手觀音叱 前良中 <禱千 3>
ㅇ. 南无佛也 白孫 舌良衣 <稱讚 2>

(5ㄱ)~(5ㅁ)은 처격조사 '-아'를 표기한 것이며, (5ㅂ)은 처격조사 '-아'에 다시 '-마다'가[2] 통합한 것이다. (5ㅅ)의 '良中'는 처격조사 '-아'와 '-긔'가 통합하여 만들어진 '-아긔'를 표기한 것이고 (5ㅇ)의 '良衣'는 '-아긔'에서 'ㄱ'이 약화되어 탈락한 '-아의'를 표기한 예이다.[3]

다음으로는 (6)과 같이 선어말어미 '-아-'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된다. 차자표기에서 일반적으로 이형태 표기가 반영되지 않음에 비해 향가에서 선어말어미 '-어-'는 '於'로 표기되는 예가 있음이 특이하다.

(6) ㄱ. 此矜 哀惡支 治良羅 <安民 6>
ㄴ. 心未 際叱矜 逐內良齊 <讚耆 8>
ㄷ. 奪叱良乙 何如 爲理古 <處容 8>
ㄹ. 仏前 灯乙 直体良焉多衣 <廣修 2>

이 외에 다음과 같은 예에서 '良'자가 사용되었다.

---

2) 후기 중세국어의 '마다'는 보조사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나 성조상 의존명사에 가까움이 김성규(1994)에서 논의된 바 있다. 전기 중세국어의 자토 석독구결에서도 '마다'는 부사나 명사에 가까운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이러한 처격조사에 대해서는 황선엽(2006ㄴ)에서 자세히 검토된 바 있다.

(7) ㄱ. 巴寶白乎隱 花良 汝隱 <兜率 2>
ㄴ. 哀反 多矣 徒良 <風謠 3>
ㄷ. 可 二功臣良 <悼二將歌 6>

(8) ㄱ. 彌勒座主 陪立 羅良 <兜率 4>
ㄴ. 法界 毛叱所只 至去良 <礼敬 4>
ㄷ. 一念惡中 涌出去良 <稱讚 4>
ㄹ. 脚烏伊 四是良羅 <處容 4>

(9) 功德 修叱如良 來如 <風謠 4>

(10) 乾達婆矣 遊烏隱 城叱肹良 望良古 <彗星 2>

(11) ㄱ. 乾達婆矣 遊烏隱 城叱肹良 望良古 <彗星 2>
ㄴ. 道尸 掃尸 星利 望良古 <彗星 7>

(7)은 호격조사 '-아'를 표기한 것이다. (8)은 종결어미의 일부인 '라' 또는 '어'를 표기한 것인데 (8ㄱ)~(8ㄷ)은 명령형어미의 '-아라/거라'의 '라', (8ㄹ)은 감탄형어미 '-어라'의 '어'를 표기한 것이다. (8ㄹ)의 '良(어)'는 선어말어미로 파악할 수도 있으나 우선은 중세국어에서와 같이 '-어라'를 하나의 어미로 처리하였다. (9)는 '如'의 해독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라'를 표기한 것으로 파악되어 온 예이다. (10)은 흔히 대제격으로 불리는 보조사 '-(으)란'을 표기한 것이며 (11)은 말음첨기의 예인데 모두 동사어간 'ᄒᆞ라-'의 말음 '라'를 나타낸다.

이 외에 다음의 예들에도 '良'자가 사용되었으나 필자는 이들에 대해 아직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미상으로 처리해 두고자 한다.

(12) ㄱ. 阿邪也 吾良 遺知支賜尸等焉 <禱千 9>
ㄴ. 向屋賜尸朋知良閪尸也 <請仏 6>

(12ㄱ)은 '吾(나)'라는 체언 뒤에 쓰였으므로 처격조사이거나 (1ㅇ)이나 (1ㅈ)과 같이 계사에 연결어미 '-아'가 통합한 '-라'를 표기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듯한데 뒷 부분의 해석이 미상이어서 이 역시 미상으로 남겨 두었다. (12ㄴ)의 '知良'의 '良'도 동사에 통합한 것으로 보이므로 연결어미인 듯하나 앞의 '朋'과 뒤의 '閪尸也'에 대한 해독이 불명확해서 미상으로 처리해 두었다.

연결어미 '-아'가 쓰인 두 번째 유형으로 연결어미 '-아'에 보조사 '-ㄱ'이 통합한 '-악'을 '惡/惡支/惡只' 등으로 표기한 예가 있다.

(13) ㄱ. 一等下叱 放 一等肹 除惡支 <禱千 6>
ㄴ. 直等隱 心音矣 命叱 使以惡只 <兜率 3>
ㄷ. 逢烏支惡 知 作乎下是 <慕竹 6>
ㄹ. 此肹 喰惡支 治良羅 <安民 6>
ㅁ. 功德叱 身乙 對爲白惡只 <稱讚 6>

(13ㄷ)만이 '支惡'으로 나타나서 특이한데 다른 예들을 고려하면 이것이 혹 '惡支'의 잘못일 수도 있을 듯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연결어미 '-아'에 보조사 '-ㄱ'이 통합한 형태가 이 시기에 자주 쓰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기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13ㅁ)을 제외하고 모두 『삼국유사』 향가의 예들인바 이는 같은 형태가 '良只'로 표기된 (4)의 예에서 <처용가>의 예를 제외하고 6개의 예가 모두 『균여전』의 것임과 대비된다. 즉 연결어미 '-아'에 보조사 '-ㄱ'이 통합한 '-악'이 『삼국유사』에서는 주로 '惡/惡支/惡只'로 표기된 반면에 균여전에서는 (13ㅁ)의 한 예를 제외하고 '良只'로 표기된 것이다. '惡/惡支/惡只'과 같은

표기에 대해 필자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연결어미 '-아' 표기가 아직 정제되어 있지 못함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한다.

향가에서 연결어미 '-아'가 쓰인 세 번째 유형은 어간 말음까지 반영하여 표기한 것들이다.

(14) ㄱ. 毛冬 居叱沙 哭屋尸以 憂音 <慕竹 2>
ㄴ. 花肹 折叱可 獻乎理音如 <獻花 4>
ㄷ. 火條 執音馬 <廣修 1>
ㄹ. 伊於 衣波 最勝供也 <廣修10>
ㅁ. 菩提 向焉 道乙 迷波 <懺悔 2>
ㅂ. 無明土 深以 埋多 <請轉 5>
ㅅ. 二于萬隱 吾羅 <禱千 7>
ㅇ. 阿邪 此身 遺也 置遣 <願往 9>
ㅈ. 阿耶 普賢叱 心音 阿于波 <摠結 9>

(14ㄱ)의 '沙'는 종래에는 선어말어미 '-시-'에 연결어미 '-아'가 통합한 것으로 보거나 보조사 '-사'로 파악하여 왔던 예이다. 전자의 경우는 '-샤'가 되어야 하는데 '沙'의 음이 '사'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고 이에 따라 이현희(1996)에서는 보조사 '-사(ㅿ)'가 어간에 직접 통합할 수 있음을 밝히고 '居叱沙'가 '居'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어간에 직접 보조사 '-사'가 통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이 역시 (14)의 다른 예들과 마찬가지로 'ㅅ'을 말음으로 가지는 동사어간에 연결어미 '-아'가 통합한 형태를 '沙'로 표기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 경우 '叱沙'가 일종의 중철 형태를 취하고 있음이 특이한데 이와 같은 중철표기는 (14ㄷ)의 '執音馬'에서도 볼 수 있다. (14ㄴ)은 '것+아>것가'를 표기한 것이고,[4] (14ㄷ)은 '執'의 의미를 지니는 '-ㅁ' 말음을 가지는 동

4) 향가에서 연결어미 '-아'가 모음교체에 따른 변이형을 보이지 않는 문제에

사어간에 연결어미 '-아'가 통합한 형태 '마'를 중철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14ㄹ)은 '닙+아>니바', (14ㅁ)은 '입+아>이바', (14ㅂ)은 '묻+아>무다'를 표기한 것이다. (14ㅅ)은 (1ㅇ), (1ㅈ)과 마찬가지로 계사 뒤에 나타나는 '-아'의 이형태 '-라'를 표기한 것인데 이러한 형태가 '羅'로 표기됨은 석독구결도 마찬가지이다. (14ㅇ)은 '기티+아>기탸'의 말음 '야'를 '也'로 표기한 것으로 파악되는 예이다. (14ㅈ) '阿于波'의 해독은 미상이나 앞에 '普賢叱 心音(普賢ㅅ 모숨)'이란 명사구가 와서 서술어가 쓰일 자리이고 (14ㄹ), (14ㅁ)과 같이 균여 향가에서 '波'가 '어간말음+아'를 표기하는 예가 있음에 주목하여 같은 유형으로 파악하였다.

연결어미 '-아'의 표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해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를 도표로 정리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 표를 통해 향가의 각 노래에서 '良'자의 사용 여부와 그 기능, 연결어미 '-아'가 '良'자 외에 어떻게 표기되어 나타나는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표1. 향가에서의 연결어미 '-아' 표기 및 '良'자의 사용 양상

歌名	연결어미 '良'	연결어미 '惡'	기타표기	연결어미 아닌 '良'
모죽지랑가		逢烏支惡	居叱沙	
헌화가			折叱可	
안민가		喰惡攴		治良羅(선어말어미)
찬기파랑가				逐內良齊(선어말어미)
혜성가				城叱肹良(보조사) 望良古(말음첨기)
원가				望阿乃(阿가 쓰임)
우적가				還於尸朗也(於가 쓰임)

대해서는 황선엽(2002)에서 논의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풍요				徒良(처격/호격/계사 활용) 修叱如良(연결어미)
처용가	入良沙			月良(처격) 四是良羅(감탄형어미?) 奪叱良乙(선어말어미)
서동요	嫁良			
도천수관음가	毛乎支內良(?)	除惡支	吾羅	前良中(처격) 吾良(처격?)
원왕생가	白良		遣也	
도솔가	唱良	使以惡只		花良(호격?) 陪立羅良(종결어미)
제망매가	浮良落尸 修良			枝良(처격) 彌陀刹良(처격)
예경제불가	盡良(어휘화?)			至去良(명령형어미) 此良(처격)
칭찬여래가	盡良(어휘화?)	對爲白惡只		舌良衣(처격) 涌出去良(명령형어미)
광수공양가			衣波 執音馬	直体良焉多依(선어말어미) 手良(처격)
참회업장가	永良(어휘화?)		迷波	
수희공덕가				理良(처격)
청전법륜가	進良只		埋多	
청불주세가	鳴良尒 知良闕尸也 (미상)			
상수불학가	碎良只 斜良只			
항순중생가	沙音賜焉逸良(라)			

	潤良只			
보개회향가	廻良只 寶良(라)			
총결무진가	餘音良		阿于波	
도이장가				功臣良(호격)

이 표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모죽지랑가, 헌화가, 안민가, 찬기파랑가, 혜성가, 원가, 우적가, 풍요' 등 『삼국유사』의 향가 중 과반수에서 연결어미 '-아'가 '良'으로 표기된 예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중 연결어미 '-아'가 '良'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기된 '모죽지랑가, 헌화가'와 워낙 짧은 노래인데다가 반복되는 구절이 많아 연결어미 '-아'가 쓰일 만한 환경이 없다고 할 수 있는 '풍요'를 제외한 '안민가, 찬기파랑가, 혜성가, 원가, 우적가' 등에서 안민가의 '喰惡攴'를 제외하고 연결어미 '-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안민가, 찬기파랑가, 혜성가'에서는 연결어미가 아닌 경우에는 '良'자가 사용되고 있으며 '원가, 우적가'에서는 '良'자가 전혀 쓰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여기서 우리는 향가에서 그 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연결어미 '-아'의 다른 표기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보고자 한다. 즉 이두에서와 같이 동사어간만 표기하고 연결어미 '-아'는 표기상 생략되는 일이 향가에서도 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미 황선엽(2002)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언과 용언이 연결되어 연결어미 '-아'가 쓰일 만한 자리이나 '-아'가 나타나지 않은 예들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다.

(15) ㄱ. 彌勒座主 陪立羅良 <兜率 4>
ㄴ. 一等下叱 放 一等肹 除惡攴 <禱千 7>
ㄷ. 緣起叱 理良 尋只 見根 <隨喜 2>

(15)와 같은 예들이 그것인데 황선엽(2002)에서는 이 예들에 대해 연결어미 '-아'가 표기상 생략되어 있을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모두 살펴본 후 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16)의 예에 대해서는 황선엽(2002)에서는 '뻐가'로 보고 '浮'와 '去' 사이에 연결어미 '-良'가 표기상 생략된 것으로 파악하는 방법과 고대국어에 '쁘가-'라는 비통사적 합성동사가 존재했다고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한 후 후자 쪽이 더 나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으나 황선엽(2008ㄱ)에서는 전자 쪽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고 견해를 수정한 바 있다.

(16) ㄱ. 白雲音 逐于 浮去隱 安攴下 <讚耆 3>
ㄴ. 達阿羅 浮去伊叱等邪 <彗星 9>

즉 (16)의 '浮'도 <제망매가>의 '浮良落尸'처럼 '쁘+어>뻐'와 같은 어형이나 찬기파랑가나 혜성가에 연결어미 '-아'가 '良'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표기되어 나타난 예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표기상 '良'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15)의 예들은 이미 기존 해독자들 사이에서도 연결어미 '-아'가 표기상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온 것들이다. 따라서 향가에서 연결어미 '-아'가 표기가 생략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필자가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이러한 연결어미 '-아'의 표기 생략이 향가의 일부 용례에서만 보이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두 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주 있는 일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즉 종래의 향가 연구에서는 향찰 표기는 대단히 정밀해서 형태소 하나하나를 세밀히 표기한다는 사실에만 너무 주목한 나머지 연결어미 '-아'의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 예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 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시각에는 향찰 표기의 층위를 구별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파악해 온 것도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연결어미 '-아'가 '良'으로 표기되는 향가들에 현혹되어 향찰 표기에서 연결어미 '-아'의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 향가들에 대해 따로 주목하지 못했던 것이다.

향찰에서 연결어미 '-아'의 표기가 이두와 마찬가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향가 자료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필자는 다음과 같은 예들도 연결어미 '-아'가 표기상 생략되어 있는 예들에 추가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17) ㄱ. 民焉 狂尸恨 阿孩古 爲賜尸 知 民是 愛尸 知古如 <安民 3-4>
ㄴ. 爲尸 知 國惡支 持以支 知古如 <安民 8>
ㄷ. 窟理叱 大肹 生以支 所音物 生 此肹 喰惡支 治良羅 <安民 5-6>
ㄹ. 必于 化綠 盡 動賜隱乃 <請仏 2>

황선엽(2008ㄱ)에서 이 중 (17ㄱ)과 (17ㄴ)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의한 바 있으며 (17ㄷ)은 그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17ㄱ)과 (17ㄴ)에 대해서 앞의 '知'는 의존명사 '디'로 뒤의 '知'는 동사 어간 '알-'로 해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장윤희(2007)에서 이와 같이 한 구절에 쓰인 같은 글자를 다르게 읽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이를 모두 '디'로 해독하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선엽(2008ㄱ)에서는 장윤희(2007)의 문제 제기가 매우 타당함에 동의하였으나 이를 모두 '알-'로 읽을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17ㄱ)의 '爲賜尸 知'나 (17ㄴ)의 '爲尸 知'의 '知'를 기존에 '알-'로 읽지 못한 것은 '知' 뒤에 어미에 해당하는 요소가 없다는 점, '知' 앞에 동명사어미 '-尸(ㄹ)'가 선행한다는 점 때문이었는데 황선엽(2008ㄱ)에서는 '知' 뒤에 연결어미 '-아'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고 향가에서 타동사들이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어미 '-ㄹ'을 취하는

예들이 있음을 통해 이를 '알-'로 읽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안민가'의 대표적인 난해구인 (17ㄷ)도 종래 한 단어로 파악해 오던 '物生'을 끊어 '生'을 동사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17ㄹ)은 (2)의 예와 같은 유형으로 연결어미 '-아'가 표기상 생략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예이다.

이 외에 다음의 예들에서도 표기상 연결어미 '-아'가 생략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듯하다.

(18) ㄱ. 栢史叱 枝次 高支好 <讚耆 9>
ㄴ. 秋察尸 不冬 爾屋支 墮米 <怨歌 2>
ㄷ. 煩惱熱留 煎將來 出米 <請轉 6>

(18ㄱ)은 '높-'에 '오'가 통합한 어형으로 보이는데 황선엽(2002)에서는 '오'가 연결어미 '-아'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었다. 문맥상 연결어미 '-아'가 적당한 곳인바 이곳에도 연결어미 '-아'가 표기상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충분하나 이 경우 '오(好)'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18ㄴ) 역시 문맥상 연결어미 '-아'가 있으면 좋은 곳이나 '屋支'의 기능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屋支'이 어간의 말음첨기라면 연결어미 '-아'가 생략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말어미거나 선어말어미라면 그렇게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18ㄷ)도 '나-(出)'라는 동사가 나오므로 연결어미가 필요한 자리인데 '將來'가 선어말어미적인 요소라면 연결어미 '-아'가 통합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러나 (1ㄱ)의 '毛乎支內良'와 같이 연결어미 '-아' 앞에 선어말어미적인 요소들이 선행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18ㄴ)과 (18ㄷ)에서 연결어미 '-아'가 들어 있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향가의 연결어미 ‘-아’ 표기 양상에 대한 해석

지금까지 향가에서 연결어미 ‘-아’가 표기되는 양상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 내용을 ‘良’자의 사용 여부와 연결어미 ‘-아’ 표기의 실현 여부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2. ‘良’자의 사용 여부에 따른 향가 분류

(가) ‘良’자가 쓰이지 않음	㉠ 연결어미 ‘-아’가 나타나지 않음	원가, 우적가	
		풍요	
	㉡ 연결어미 ‘-아’가 나타남	모죽지랑가, 헌화가	
(나) ‘良’자가 쓰임	㉢ 연결어미 ‘-아’ 표기에 ‘良’자 안 쓰임	찬기파랑가, 안민가, 혜성가	광수공양가, 수희공덕가
	㉣ 연결어미 ‘-아’ 표기에 ‘良’자 쓰임	처용가, 서동요, 도천수관음가, 원왕생가, 도솔가, 제망매가	예경제불가, 칭찬여래가, 참회업장가, 청정법륜가, 청불주세가, 상수불학가, 항순중생가, 보개회향가, 총결무진가

(가㉠)을 다시 둘로 나눈 것은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풍요’의 경우 우연한 공백일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즉 ‘良’자도 쓰이지 않고, 연결어미 ‘-아’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해당 노래에 그러한 환경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위의 표에 따르면 『삼국유사』의 향가는 4가지 유형의 표기가 나타남에 비해 『균여전』의 향가는 (나㉢), (나㉣)의 두 유형만이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결어미 ‘-아’ 표기에 관한 한 『균여전』 향가의 표기가 더 정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향가에서 이와 같이 연결어미 ‘-아’ 표기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작자에 의해 지어진 ‘찬기파랑가, 안민가’와 ‘도

솔가, 제망매가'가 같은 표기 양상을 보인다는 점과 이 네 작품의 창작 연대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차이는 표기자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두에서 연결어미 '-아' 표기의 발전 과정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표기 양상은 차자표기의 발전 과정에 따른 시간적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파악하고자 한다. 즉 향가의 창작 연대와 표기 시점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두에서의 연결어미 '-아' 표기는 황선엽(2002)에서 자세히 고찰된 바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11세기까지 이두 자료에서는 연결어미 '-아'가 표기상 나타나지 않는다.

(19) ㄱ. 又 靑衣童子 着 四伎樂人等 竝 伎樂爲弥 又 一人 香水 行道中 散弥 又 一人 花 捧 行道中 散弥 <華嚴經寫經, 755년>
ㄴ. 諸筆師等 各 香花 捧尒 右念行道爲 作處中 至者 三歸依尒 三反頂禮爲內 <華嚴經寫經, 755년>
ㄷ. 自 毗盧遮那是等 覺 去世爲尒 誓內之 <永泰毘盧, 766년>

(19ㄱ)에서와 같이 '爲弥, 散弥'와 같이 연결어미 '-며'가 통합할 때는 표기가 되나 '着, 捧'과 같이 문맥상 연결어미 '-아'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어미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는다. 이러한 곳에 연결어미 '-아'가 있지만 표기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음은 다음과 같은 예들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20) ㄱ. 楮根中 香水散尒 生長令內弥 <華嚴經寫經>
ㄴ. 香水用尒 沐浴令只但 作作處中 進在之 <華嚴經寫經>
ㄷ. 若見內 人那 向尒 頂禮爲那 遙聞內那 隨喜爲內那 影中逕類那 吹尒 逕風 逕所 方處 一切衆生那 一切皆 三惡道業滅尒 <永泰毘盧>

(20)의 예들은 모두 동사 어간 뒤에 '-尒'이 표기된 예인데 이들도 (4ㄴ)과 같이 연결어미 '-아'에 보조사 '-곰'이 통합한 것이나 이두에서 표기상 연결어미 '-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두에서 연결어미 '-아'의 표기가 많이 나타나는 13세기부터 이들 형태는 (21)과 같이 '-良尒'으로 표기되어 나타난다.

(21) ㄱ. 柴地段 山谷是良尒 結卜數 不知 審檢 不得 <修禪社現況, 1221-6년>
ㄴ. 齊齊上納 不得 爲只爲 流毒三韓爲良尒 民怨無極爲 因此生災爲旀 <尙書都官貼, 1262년>

이두에서 연결어미 '-아'가 '良'으로 표기되어 나타나는 자료는 종래의 보고에 따르면 1031년의 <淨兜寺石塔形止記>에서부터이며 그 예도 '-乙用良'나 '-乎等用良'과 같이 관용적인 표현에 국한된 것이었다. 연결어미 '-아'만이 아니라 다른 문법 형태소를 표기하기 위한 '良'자의 사용도 이 때부터이다.

(22) ㄱ. 乙卯二月十五日 宋良卿矣結審是乎 導行乙用良 顯德三年丙辰三月日 練立作良中(<淨兜寺石塔, 1031년>
ㄴ. 太平十年歲次庚午十二月七日 牒以 寺代內 應爲處追于 立是白乎味了在乎等用良 同日三寶內庭中乙 定爲在乎事是等以 <淨兜寺石塔, 1031년>

그러나 최근에 보고된 '佛國寺無垢淨光塔重修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예에서 연결어미 '-아'가 '良' 또는 'ᄀᆞ'로 표기된 예들이 나타난다. 물론 '良'자는 처격조사 등의 표기에도 사용된다. (23)의 예를 통해 11세기 초에는 이미 이두에서 연결어미 '-아'를 '良'으로 표기하는 것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표기가 시작되는 것은 10세기 경이 아닐까 추정되나 아직 이러한 자료는 발굴되지 않고 있다.

(23) ㄱ. 當寺 依止 工巧僧人乙 合ᄒᆞ <無垢淨光塔重修記, 1024년/1038년>
ㄴ. 十八日 辰時亦中 下是白良 <無垢淨光塔重修記, 1024년/1038년>
ㄷ. 名公釋德戈只 正細爲良 安爲白遣 <無垢淨光塔重修記, 1024년/1038년>

이상에 따르면 이두에서는 8세기 경부터 어미의 표기가 많이 나타나나 연결어미 '-아'는 표기되지 않다가 11세기 초부터 '良'에 의해 표기된 예가 다수 보이기 시작한다. 연결어미뿐 아니라 이두에서 문법형태소 표기에 '良'가 사용된 예도 이때부터 나타난다. 이를 향가의 표기에도 적용한다면 표2의 (나)와 같이 '良'자의 의한 연결어미 '-아' 표기는 후대의 것이고 (가)와 같이 '良'자가 쓰이지 않은 것이 더 고형의 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과 ㉡ 또는 ㉢과 ㉣이 유의미한 차이인지, 유의미하다면 그것이 시간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 표기자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문법 형태의 표기에 대한 차이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좀더 구체적인 향가의 표기 층위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는 바이다.

參考文獻

강길운(1995), 『향가신해독연구』, 학문사.

김선기(1973), 『옛적 노래의 새풀이』, 보성문화사.

김성규(1994), 『중세국어의 성조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완진(1980),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출판부.

김준영(1979), 『향가문학』, 형설출판사.

남풍현(1999), 『국어사를 위한 구결연구』, 태학사.

남풍현(2000), 『이두연구』, 태학사.

류 렬(1997), 『향가연구』(조선어학전서 13, 2003, 박이정 재간행).

박용식(2005), 「향찰에서의 표기 생략에 대하여」, 『우리말글교육』 제6집, 우리말글교육학회:47-63.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21-205.

서재극(1975), 『신라 향가의 어휘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서종학(1995), 『이두의 역사적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안병희(1992), 『국어사 연구』, 문학과지성사.

양주동(1965/1990), 『증정고가연구』, 일조각.

유창균(1994), 『향가비해』, 형설출판사.

이승재(1992), 『고려시대의 이두』, 국어학총서 17, 태학사.

이승재(1998), 「고대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이 탁(1956), 「향가 신해독」, 『한글』 116.

이현희(1994), 「국어 문법사 기술의 몇 문제」, 『한국어문』 2.

이현희(1996), 「향가의 언어학적 해독」, 『새국어생활』 6-1, 국립국어연구원: 3-16.

장윤희(2007), 「<安民歌>의 새로운 해독」, 구결학회 5월, 10월 월례강독회 발표문.

정렬모(1965), 『향가연구』,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정재영(1996), 『의존명사 'ᄃᆞ'의 문법화』, 국어학총서 23, 국어학회.

정창일(1987), 『향가신연구』, 세종출판사.
지헌영(1948), 『향가여요신석』, 정음사.
한재영(1995), 「鄕歌 '良'字 小考」,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85-99.
홍기문(1956), 『향가해석』, 평양: 과학원.
황선엽(2002),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황선엽(2006ㄱ), 「원왕생가의 해독에 대하여」, 『구결연구』 17, 구결학회: 191-225.
황선엽(2006ㄴ), 「고대국어의 처격조사」,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307-328.
황선엽(2008ㄱ), 「<安民歌> 解讀을 위한 새로운 시도」, 『한국문화』 4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5-233.
황선엽(2008ㄴ), 「삼국유사와 균여전의 향찰 表記字 비교」, 『국어학』 51, 국어학회: 279-311.
小倉進平(1929), 『鄕歌及び吏讀の硏究』, 京城帝國大學.

[136-742 서울 성북구 동선동3가 249-1 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E-mail: idhsy@sungshin.ac.kr
접수일자: 2010. 05. 30.
심사일자: 2010. 06. 28.
게재결정: 2010. 07. 16.

鄕歌に現れる連結語尾「-아」の表記様相

黃善燁

本論文は、鄕歌に現れる連結語尾「-아」の表記様相について考察を行い、先行研究では未解明であった新しい事実を明らかにした上で、新たな鄕歌解読の基礎を設けることを目的とする。

鄕歌に現れる連結語尾「-아」の表記様相は、次の四つに分かれる。

① 連結語尾「-아」が「良」と表記された例。
② 連結語尾「-아」に補助詞「-ㄱ」が統合した「-악」が「惡/惡支/惡只」のように表記された例。
③ 連結語尾「-아」に語幹末音まで反映して表記された例。
④ 連結語尾「-아」の表記が省略された例。

上記の④に関しては、従来の鄕歌解読ではあまり注目されなかったが、本論文では、鄕歌において連結語尾「-아」の表記が省略された例が多数あることを確認し、同時代の吏読資料と比べて④のような表記が他の表記より古い形を反映してい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考察した。本論文は連結語尾「-아」の表記について取り扱ったが、「-아」という一つの文法形態素の問題だけではなく、鄕札表記の層位の問題についてまで考察を行ったという点に本論文の意義がある。

キーワード：鄕歌、鄕札、表記法、連結語尾「-아」, 表記の層位、表記省略